

투데이 칼럼

한반도 긴장 수위 높이는 북한

북한이 최근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가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형 ICBM 화성-17형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 조만간 북한이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미 군 당국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우리 군은 유해공 함동 정밀타격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군도 전략폭격기 출격을 고려하고 있다. 북한은 또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200km를 오르지 못하고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잔해는 평양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는데 민간인 피해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미사일 발사 실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올 들어 계속된 9차례의 미사일 발사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엔 발사된 미사일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쏘아 올린 신형 ICBM 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형 ICBM 화성-17형은 사정거리가 1만 3천km가 넘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정복규
논설위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괴물 ICBM'으로도 불린다. 전문가들은 액체연료가 주입된 1단이 분리되기도 전에 미사일이 폭발한 점으로 미루 엔진 결합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한미 군 당국도 전방위 군사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미군 전투기들은 서해 상공까지 진입해 훈련을 진행했다. 주한미군은 탄도미사일 요격 훈련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2017년 이후 중단됐던 각종 훈련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7년 11월 29일 새벽, 북한은 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역대 북한이 쏜 미사일 가운데 최고 고도이자 최장 사거리였다. 그로부터 불과 6분 뒤, 우리의 유해공군

화력도 일제히 화염을 내뿜었다. 지상에선 육군 현무-2 탄도미사일, 해상에선 해군 이지스함에서 해상-2 함대지 미사일이 발사됐다.

같은 시각 하늘에서는 KF-16 전투기가 출격해 스페이스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원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동해상에 가상 표적을 설정해 놓고 3군 전력 이 동시에 타격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ICBM을 다시 쏘아 올릴 경우 2017년과 같은 훈련을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서해상에 특수정찰기와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데 이어, 장거리 폭격기까지 출격시키는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한국의 역대 대선 전후에 도발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2003년 2월, 북한

은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금상-1호를 발사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작 한 달여 만에는 서해상에 서 단거리미사일 3발을 연이어 발사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13일 전엔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북한 핵실험 직후 긴급 회동을 갖기도 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거의 한 달 내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졌다. 북한은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았다. 모두 역대 남한 대통령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취임 전후 무력시위를 벌여왔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다.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재개하더라도 미국의 개입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한미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ICBM 발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은 정권 교체를 맞았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대북 강경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강대국 대치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우크라이나 군인, 러시아 장갑차 잔해 앞 두 손 번쩍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이 파괴된 러시아군 장갑차들을 뒤에 두고 손을 번쩍 들고 있다.

인권 침해 증가 향의하는 브라질 시위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 증가에 향의하는 시위가 열려 시위대가 과거 독재 정권 시절 희생된 사람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

사설

익산 오폭관광단지 사업

익산의 오폭관광단지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익산 오폭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익산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1, 2순위 민간 사업자에게 부적격 통보를 하면서 소송전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오폭관광단지 조성 터는 익산시가 60억 원을 들여 사들인 2만 제곱미터 규모다.

익산시는 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선 협상 1순위 민간 사업자에게 두 달 전, 자기 자본 부족 등을 이유로 자격 상실을 통보했다. 해당 업체는 익산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순위 업체는 지난달 익산시의 부적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익산시가 최근 2순위 민간 사업자에게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부적격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순위 민간 사업자는 3개 주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이 중

한 곳이 사실상 유령회사로 자본 조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이들이 제출한 투자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른바 '백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예전에도 자본 때문에 투자가 안 된 적이 있다. 그래서 익산시는 민간 사업자의 자본에 대해서 강도 높게 검토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2순위 민간 사업자는 자본력이 큰 신탁사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어 자금 조달 계획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익산 오폭관광단지 개발 사업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이 법적 다툼에 나서면서 재공모 시점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04년 이후, 20년 가까이 허송세월을 보낸 오폭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또다시 장기 표류할 우려가 커졌다.

인수위 인선 마무리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다. 전북 출신 인사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겸 전북도당 위원장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발탁됐다.

이재성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기획조정 분과 전문위원,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정무사법행정 분과,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역균형발전특위에 파견됐다.

고창 출신의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재선 의원이다.

20대 총선 때 전주에서 당선됐고 21대 총선 때는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지역의 극복과 국민통합,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 신념을 갖고 일 해왔다며 "제가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만큼 전북도당 차원에서 직접 제시한 8대 공약은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출신인 이용호 의원은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이다. 20대, 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당내 유일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 대선 과정에서 선거대책본부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맡았다. 인수위에서는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로서 사법 개혁 등을 다루는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를 졸업한 인수위원은 총 13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은 경제1분과 간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정무사법행정 분과 유상범 의원이다.

인수위를 구성하고 있는 권영세 부위원장과 원희룡 기획위원장,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을 포함하면 서울 법대 출신만 5명인 셈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